

사로국(斯盧國)에서 신라(新羅)로

2017. 10. 17.

박대재 *

I. 신라사의 시기구분

『삼국사기』 신라 지증마립간 4년(503)조에는 다음과 같이 신라의 국호와 왕호가 정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A. (지증마립간) 4년 겨울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아뢰었다.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국호를 정하지 않아 사라(斯羅)라고도 하고 혹은 사로(斯盧) 또는 신라(新羅)라고도 칭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살펴 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帝)나 왕(王)을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방언만을 칭하고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못 신하가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국왕(新羅國王)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왕이 이에 따랐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이에 따라 신라의 국호와 왕호가 지증왕 4년인 503년 10월에 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잘못 이해해서 이 때 처음 신라라는 국호가 쓰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의 기록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지증왕 4년 이전에도 이미 ‘신라’라는 국호는 사용되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고구려 장수왕 3년(414) 세워진 「광개토왕비」에는 영락(永樂) 6년(396)조 서두의 신묘(辛卯)년(391) 기록에 ‘신라’의 국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라는 국호가 지증왕 4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라, 사로 등과 함께 쓰이다가, 이때에 이르러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의 뜻에서 ‘신라’ 하나로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거서간이 세웠던 ‘서라벌(徐那伐, 徐羅伐)’의 서나(서라) 역시 사라, 사로와 마찬가지로 ‘신라’ 국호가 확정되기 이전의 명칭이다.

지증왕 4년에 사로, 사라, 신라 등 여러 국호에서 신라 국호 한가지로 확정된 것은 이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역임. 『고대 조선과 예맥』(2013, 경인문화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2006, 경인문화사), 『의식과 전쟁』(2003, 책세상) 외 고조선, 삼한 등 초기국가 관련 논저 다수.

시기가 신라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신라사의 시기를 상고(上古), 중고(中古), 하고(下古)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상고는 제1대 시조 혁거세거서간부터 제22대 지증마립간 시기까지, 중고는 제23대 법흥왕이 즉위하는 514년부터 제28대 진덕여왕 654년까지, 하고는 제29대 태종무열왕이 즉위하는 654년부터 마지막 제56대 경순왕 935년까지이다.

『삼국유사』의 신라사 시기구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중고기의 설정인데, 이 시기는 불교식 왕명, 신라 왕실이 석가모니의 종족이라는 진중설 등 불교를 통한 왕실의 지배권 확립, 불교의 신성 관념과 관련된 성골(聖骨) 개념 도출 등 사회변화에 불교가 크게 작용하던 시기이다. 불교 승려 일연에 의해 편찬된 『삼국유사』이다보니 불교가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던 중고기를 신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파악하고, 그 이전은 상고, 그 이후는 하고로 구분한 것이다.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智訂麻立干) 이상은 상고이고, 이하는 중고이다.”라고 하여, 지증왕 시기를 경계로 상고와 중고를 나누고 있다. 한편 지증왕 이하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이고, 그 이하는 하고로 진골(眞骨)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사의 시기를 상대(上代), 중대(中代), 하대(下代)로 구분하였다. 제29대 태종무열왕이 즉위하는 654년부터 제36대 혜공왕 780년까지를 중대로 설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를 상대와 하대로 구분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무열왕계 왕실이 집권하며 유학이 국학(國學)으로 세워져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던 중대를 중시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상대는 『삼국유사』의 상고와 중고의 시기를 합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신라사는 크게 상고, 중고, 중대, 하대의 4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증왕은 처음에 ‘마립간’이라고 불리다가 ‘왕’이라고 왕호가 바뀐 것에서도 보듯이, 그 재위 기간은 신라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신라의 국호 확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증왕 때에 신라 국호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지증왕 이후부터 신라사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사로국에서 신라왕국으로의 전환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장기지속적인 발전 과정이었다.

II. 진한의 사로국과 ‘진한왕’

신라가 삼한 가운데 진한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한의 역사를 처음 본격적으로 기록한 중국 정사인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진한은 12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사로국이 바로 신라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진한이 신라의 전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한 12국이 처음부터 신라의 영역이었던 것은 아니다. 12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이 주변의 다른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복속해 나가면서 신라왕국으로 점차 발전해간 것이다. 사로국에서 신라왕국으로의 발전은 진한의 사로국이 주변의 다른 소국을 정복복속해 나아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진한 12국을 아우른 왕국으로서의 신라는 언제 등장했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학계에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3세기 중엽에 신라가 진한 12국을 아우르고 진한의 왕으로서 대두했다고 보는 입장(이하 3세기론)²⁾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 4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한 연맹체를 청산하고 신라 왕국이라 부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이하 ‘4세기론’이라 약칭함)³⁾이다.

B. 이 4개의 분기(상고, 중고, 중대, 하대) 가운데 신라사의 출발인 상고는 무려 570년에 달하는 기간으로서 다른 시기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 그런데 국명이나 왕호를 비롯한 국가의 내부 구조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여러 가지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두 시기로 다시 세분할 수가 있다. 이처럼 상고만은 따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는 혁거세로부터 16대 흘해왕까지이다. 이때는 신라가 아닌 사로국이란 국명이 사용되었고, 그 최고 지배자는 이사금이라 불리었다. 후기는 17대 奈勿王이 즉위한 356년부터 22대 지증왕 때까지이다. 이때에는 신라란 국명이 처음 출현하였으며 그에 걸맞는 새로운 왕호로서 마립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사로국이란 초기국가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고대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춘 시기이다. 이처럼 상고는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할 때 성격상 차이가 나는 전후로 다시 나눔이 올바른 접근이겠다.⁴⁾

위의 견해는 4세기 중엽 내물왕대에 진한에서 신라 왕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4세기론’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물왕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른 실체의 역사를 단절해서 이해하지는 않는다. 내물왕 이전을 신라 상고기의 전기로 보면서, 신라사의 출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명이 사로국, 왕호가 이사금이었던 전기와, 국명과 왕호가 신라, 마립간으로 바뀐 후기로 세분해 보고 있지만, 상고기를 신라사의 ‘출발’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전기를 초기국가 단계로, 후기를 고대국가로 구분해 보고 있다. 이것은 내물왕 이전을 신라의 역사에서 잘라내어 그 ‘前史’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와 연결해 신라의 초기(전기)사로 보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세기론’에서는 斯盧에서 新羅로의 국명 변화를 매우 중시한다. 하지만 내물왕대 이후 ‘신라’만 국호로 쓰인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지증왕 4년(503) 건립된 「영일냉수리 신라비」에는 ‘斯羅’로 국호가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新羅’ 국호가 확정된 것은 지증왕 4

2)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三韓攷 3부—」(上:下) 『韓國學報』 23;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3) 주보돈, 2011, 「진한에서 신라로」 『신라 형성기의 유적-집터(주거지)유적·무덤(분묘)유적·생산유적·기타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주보돈, 2016, 「신라사의 시기 구분과 흐름」 『신라사 총론』(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 경상북도.

4) 주보돈, 2016, 앞의 글, 265쪽.

년(503) 10월이며, 그전에는 斯羅, 斯盧, 新羅를 혼용했다고 한다.

‘斯盧’에서 ‘新羅’로의 변화는 국명의 변경이라기보다 借字表記의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梁書』 신라전에서,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斯盧’·‘新盧’, ‘新羅’·‘斯羅’가 혼용되었던 것이다.

사료에서 신라로의 변화는 ‘伯濟’에서 ‘百濟’로, 狗邪에서 加耶로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斯盧·伯濟·狗邪에서 新羅·百濟·加耶로의 변화는 시기에 따른 차자표기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삼국지』의 伯濟·斯盧와 『삼국사기』의 百濟·新羅가 동일한 실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양자를 다른 존재처럼 구분해 보기는 어렵다.

또한 4세기론에서는 내물왕부터 麻立干이란 왕호를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사실 4세기론에서는 3세기까지를 신라의 前史 즉 진한사로 보고, 4세기 중엽 이후 마립간시대부터를 신라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4세기 중엽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기 전까지 이사금이라는 신라의 토착적인 왕호가 있었다. 이사금이나 마립간은 모두 신라의 시기별 토착적 왕호이다. 신라의 이두식 왕호인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 지증왕 때 중국 한자식 왕호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신라 시대 김대문과 최치원이 남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 토착 이두식 왕호가 변전한 장기적 과정에서 보면, 이사금기와 마립간기는 서로 연결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의 변화는 지배체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신라의 국가형성 과정은 진한에서 신라로의 전환보다, 斯盧國에서 新羅로의 계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파악하는 시각⁵⁾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다.⁶⁾

한편 3세기론에서는 사로국이 진한 소국을 모두 정복복속시킨 시점을 260년대 첨해 이사금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지』 동이전 진한조에 보이는 ‘진왕’을 ‘진한왕’의 의미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진왕이 마한조와 진한조에 각각 보인다. 마한조에서는 목지국에 치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오며, 진한조에서는 12국이 진왕에게 복속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세기론에서는 마한과 진한의 진왕을 구분해 보면서, 후자를 사로국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삼국지』 동이전 다음 시기인 3세기 말의 상황을 전하는 『진서』 동이전에는 진한에 왕이 있었던 것으로 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원년(280)에 진한의 ‘왕(王)’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는 것이다. 진한왕은 태강 2년과 7년에도 서진(西晉)에 조공하였다.

이러한 『진서』의 기록에 주목해 보면, 3세기 말이 되면 진한에서 12국을 정복복속한 진한왕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진한왕은 시기적으로 보아 262~284년 재위한 신라의 미추이사금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사로국이 진한 12국을

5) 김재홍, 1996,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金壽泰, 2003, 「新羅의 國家形成」 『新羅文化』 21.

6) 박대제,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 87.

모두 복속시키고 진한의 왕자로 등장한 시기를 3세기 말 미추이사금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⁷⁾

하지만 이 때 사로국의 진한 소국 복속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살펴 볼 것처럼 미추이사금 다음 유례이사금 때 청도에 있었던 이서국이 경주를 침공한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진한왕의 지위가 여전히 주변 소국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사로국의 소국 복속과 신라왕국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斯盧國이 주변의 소국을 차례로 복속해 나가는 과정이 2~3 세기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파사이사금 23년(102)에 복속된 음즙벌국(音汁伐國)·실직국(悉直國)·압독국(押督國)의 기록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C. (파사이사금) 23년 가을 8월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강역을 다투다가, 왕을 찾아와 해결해 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하고, 그를 불러 물었더니 수로가 의논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를 위한 연회에 모이게 하였는데, 5부는 모두 이찬으로서 접대 주인을 삼았으나 오직 한기부(漢祗部)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종(奴)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우두머리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종은 도망하여 음즙벌국의 우두머리 타추간(陀鄒干)의 집에 의지해 있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국과 압독국(押督國) 두 나라의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

이 기록은 사로국이 주변 소국을 정복하며 영역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개시 시점을 보여준다.

음즙벌국은 현재 경주 분지 북쪽의 안강에 비정되며, 실직국은 삼척에, 압독국은 경산에 각각 비정된다. 그런데 삼척의 실직국 안강의 음즙벌국은 육로상 거리가 너무 멀어 영역 분쟁을 일으켰다는 기록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강과 삼척은 모두 동해안 루트와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두 지역의 영역 분쟁은 육상이 아니라 해상의 권역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이해된다.

다음으로 사로국은 파사이사금 29년(108)에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 3국을 복속시켰다. 그 이후 사로국은 소문국(召文國), 감문국(甘文國), 골벌국(骨伐國), 사벌국(沙伐國)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아갔다.

7) 박대재, 2006, 「辰韓의 왕과 諸國 복속 전쟁」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난 사로국의 소국 복속

국명	복속 시기	위치
음즙벌국	파사이사금 23(102)	경북 경주 안강
실직국	〃	강원 삼척
압독국	〃	경북 경산
비지국	파사이사금 29(108)	경남 창녕
다벌국	〃	대구
초팔국	〃	경남 합천 초계
소문국	벌휴이사금 2(185)	경북 의성
감문국	조분이사금 2(231)	경북 김천 개령
골벌국	조분이사금 7(236)	경북 영천

『삼국사기』 석우노(昔于老)전에 의하면, 경북 상주에 비정되는 사벌국은 첨해이사금 때 사로국을 배신하고 백제에 귀부한 적이 있는데 于老가 군사를 이끌고 가 토벌했다고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상주의 사벌국은 첨해이사금 시기에 복속된 것으로 나온다.

경북 청도로 비정되는 이서국(伊西國)은 유례이사금 14년(297)에 경주를 대대적으로 침공한 적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제3대 유리이사금 19년(42)에 사로국이 이서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유사』의 이 기록은 ‘儒理(弩禮)尼叱今’과 ‘儒禮尼叱今’을 서로 혼동한 잘못된 기록이라고 이해된다. 3세기 말 유례이사금대 이서국이 사로국을 침공했다가 오히려 정벌·복속된 사실이 와전되어 유리이사금대의 사실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거도(居道)전에 의하면 파사이사금 이전인 탈해이사금 시기에 거도가 거칠산국(居柒山國)과 우시산국(于尸山國)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은 각각 울산과 동래로 비정된다. 이 기록을 중시하면 사로국이 주변 소국을 정복하기 시작한 시점은 서기 1세기 전반 탈해이사금 시기부터라고 이해된다.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2세기 초 파사이사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로국의 주변 소국 복속 전쟁은 유례이사금 시기 청도의 이서국 정벌을 끝으로 완료되었다. 그 이후로 신라의 주변 소국 정복 기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로국의 진한 소국 복속이 3세기 말에 일단락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진한의 1국이었던 사로국에서 진한 소국을 아우른 신라왕국으로의 전환은 3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유사』 왕력에는 제15대 기림이질금(기림이사금) 정묘년(307)에 “국호를 ‘新羅’

8) 金瑛河, 1991, 「新羅의 發展段階와 戰爭」 『韓國古代史研究』 4;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로 하였으니, ‘新’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요, ‘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것이다. 또 는 지증법흥왕 때의 일이라고도 한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지증마립간 4년에 있었던 신라로의 국호 확정이 기림이사금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삼국유사』 왕력의 ‘신라’ 국호 기록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진한의 사로국이 주변 소국을 정복복속하고 진한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기림이사금 시기 신라 국호 변경 기록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김재홍, 1996,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金壽泰, 2003, 「新羅의 國家形成」 『新羅文化』 21.
주보돈, 2016, 「신라사의 시기 구분과 흐름」 『신라사 총론』(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 경상북도.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 87.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